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쌀쌀하다.

제목 : 강화도에서 개구리를 잡았다.

강화도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다. 잡은 개구리 종류는 청개구리, 독개구리, 빨간개구리, 무당개구리 등 여러 개구리가 있었다. 나와 한솔이는 청개구리 밖에 못 잡았다. 그곳에는 수영장도 있었다. 나는 수영복으로 가라 입고 수영장으로 풍덩 뛰어들어 갔다. 그 재서야 한솔이도 뒤따라 수영장에 풍덩 드러났다. 개구리도 수영장에 뛰어 들었다. 우리랑 같이 개구리도 수영을 했다. 우리보다 개구리가 수영을 더 잘는 것 같았다. 참 재미있는 날이였다. 다음에 또 강화도에와서 개구리도 잡고 수영도 하고 싶다.